

판문점 특별견학 재개

- 통일부 조직 개편(9.8.)으로 판문점 견학 업무가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관된 이후, 국립통일교육원은 견학 업무와 관련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.
 - 또한, 어제(11.20.) 통일부장관은 유엔사에 방문하여 판문점 견학 재개 등 양측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.
 - 관련하여 내일(11.22.) 오후 특별견학을 실시합니다.
- 지난 7월 18일 이후 4개월 동안 중단되어온 판문점 견학 재개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안보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.
 - 내일(11.22.) 특별견학은 통일부 정책고객(정책자문위원, 통일교육위원, 탈북민 전문강사 등) 등 통일·안보의식 확산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20명이 참여합니다.
- 앞으로 판문점 견학은 우선 특별견학으로만 운영되며 △주 4일 △1일 총 3회 △1회당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- 통일부는 일반견학도 유엔사와 우리 국민의 안전 등 제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	책임자	과 장	김수영 (02-901-70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유진 (02-901-7034)